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4년도 제22호

### [김현수 칼럼]

#### 3선 연임제한 없앤 이기흥, 스포츠의 암흑기

김현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체육회 '연임제한' 폐지 추진...왜?

#### 무보수 봉사직이라고? 체육단체장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무형 KBS뉴스 기자

### 1·2학년 '즐거운 생활' 체육 분리, 코로나 영향 비만을 증가 등 이유

#### 초등 체육교과 분리과정의 민주적 정치문화 미흡

이현서 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 [김대희 교수의 알기 쉬운 스포츠법정책]

#### 21대 국회의 스포츠관련 입법 현황과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 교수

### 도교육청 세심한 관리 필요성 제기

####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 선수들 안전관리, 지도교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건가

신연경 중부일보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체육시민연대 소식

보도자료	배 포	2024년 05월 30일(목)
	보도일시	2024년 05월 30일(목)
 체육시민연대 Citizens Network for Justice in Sport	전 화	02) 2279 - 8999
	홈페이지	www.sportscm.org

##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의 영구집권 시도를 규탄한다!

이기홍 재임 8년, 대한민국 엘리트스포츠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48년 만에 파리올림픽 최소인원 참가가 유력하다.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질적인 하락도 역력하다. 여자핸드볼을 제외한 모든 구기종목은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특히 남자축구의 10회 연속 출전 불발은 내용 면에서 최악이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악수(惡手)에 악수를 거듭한 결과다. 정 회장은 이번 정관 개정의 또 다른 수혜자로 거론되고 있다. 스포츠개혁의 목소리를 엘리트 죽이기라고 몰아붙이며 시대의 변화에 역행한 결과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성적 부진만으로 이기홍 회장을 규탄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 성적 부진에 대한 체육계 수장의 대응이 시대착오적이다. 작년 아시안게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기홍 회장은 정신력이 해이해졌다고 대표선수들의 해병대 입소훈련을 언급해 세간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 시대착오적 제안은 지난해 12월 엄동설한에 강행되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 개정을 통해 '국위선양'이 삭제되었는데도, 대한체육회 정관 제3조에 '국위선양'이 유지되고 있다. 정작 개정해야 할 부분은 이런 것이다.

이기홍 재임 8년, 구호뿐인 모두를 위한 스포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미증유의 저출생 시대를 맞아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세심하게 챙기고 살피야 할 대한체육회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 당국조차 부정적이던 스위스에 출장소 개소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민들의 스포츠 향유를 위해 쓰여야 할 재원이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 체육계의 자율성을 빌미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와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힘없는 선수들, 행정가들 모아놓고 막강한 체육대통령의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OECD 최하위, 재선 공약 1호였던 스포츠 인권의 뒷걸음질은 언급하기조차 민망하다. 이기홍 회장은 연임을 꿈꾸기보다 조기 사퇴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기홍과 그의 동조자들에게

이기홍 회장의 지난 8년간의 성적표를 보고도 조직 사유화와 장기집권을 달성하기 위한 정관개정에 동조할 것인가? 이기홍 회장의 동조자들은 이 참사에 가까운 체육의 붕괴가 이기홍 회장의 주장처럼 해병대 캠프에서 길러야 할 정신무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가? 주체적으로 사유하고, 반성하시기 바란다, 이기홍 회장 8년 동안 한국 스포츠를 망친 공범은 바로 당신들이다.

시민사회계는 연대하고, 기억하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지방 체육계에 사람이 없어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궤변이다. 이미 복마전으로 변해버린 체육계를 자정하고, 한국 체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많은 인재들의 앞길을 막는 길이다. 체육계 미래를 막지 말고 순리를 따르라.

체육 시민사회계는 대한민국 체육을 병들게 한 이기홍 회장 8년을 제대로 평가하고, 책임져야 할 모두를 기억할 것이다. 셀프 정관변경을 시도하는 이기홍 회장과 이사회를 규탄한다. 만약 정관변경이 통과되면 회장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

2024년 5월 31일

체육시민연대/문화연대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반대 구호 외치는 시민단체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제31차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열린 31일 오전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관계자들이 이사회 개최 장소의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영구집권 시도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5.31

# 3선 연임제한 없앤 이기홍, 스포츠의 암흑기

김현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특별조사단장 /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대한체육회 제31차 이사회가 열린 5월 31일 10시, 대한체육회 주변은 시위대의 외침으로 뜨거웠다. 대한테니스협회의 관리단체 지정과 체육회장의 무한 연임을 위한 정관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체육계의 고질병으로 지적된 조직 사유화 문제를 거수기처럼 통과시켰다.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관 승인절차만 거치면 체육계에서 이들의 기득권은 더욱 공고해지게 된다.

## 이기홍 회장은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남겼나?

현 이사회가 연임의 명석을 깔아줄 정도로 이기홍 회장의 재임 8년은 훌륭했는가? 그의 재임 기간은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암흑기라 부를 수 있다. 48년 만에 올림픽 최소인원 참가 유력, 여자핸드볼 외 모든 구기종목 탈락, 남자축구의 10회 연속 출전 좌절, 남자체조의 9회 연속 출전 좌절. 투기 종목의 뚜렷한 하향세,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종합 16위로 37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 2004년 아테네부터 2016년 리우 올림픽까지 유지하던 10위권 좌절 등 그는 수많은 좌절의 역사를 썼다.

4년 전, 故 최숙현 선수가 지도자들의 가혹한 폭력에 운명을 달리했을 때였다. 국회가 승리지상주의에 경도된 스포츠 패러다임을 바꿔보고자,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했을 때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한체육회 정관에 명시된 '국위선양'을 유지했다. 이렇게 남다르게 엘리트 스포츠를 챙기던 그는 엄동설한에 선수들의 정신력이 부족하다며, 해병대에 캠프까지 차린 시대착오적 인물이 아니었던가? 그런 그가 스스로 스포츠대통령의 자격이 충분하다며 장기집권을 선포했다.

## 이기홍 재임 8년, 국민체육은 어디에 있는가?

이기홍 회장은 엘리트 스포츠에만 좌절의 역사를 만들지 않았다. 최근 저출생이 심각한 가운데 체육, 스포츠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이때 누구보다 풀뿌리 체육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사람이 바로 대한체육회장이 아닌가? 그의 행보를 보면 IOC 위원으로서 국민대우에 취해 화려한 외유만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많은 보좌진을 거느리는 것은 물론,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활약을 핑계로 수많은 해외 출장에도 모자라 스위스에 출장소까지 만들었다.

그러는 동안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또 유소년 스포츠는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선수가 없어 고사 직전에 와 있다. 더구나 본인의 재선 공약 1호였던 스포츠 인권은 다시 과거로 뒷걸음질 쳤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놔두라는 회장

이기홍 회장이 재임 기간 특별히 강조한 것은 바로 체육계의 자율성과 체육인들의 자부심이다. 문체부와 사사건건 맞서는 모습은 마치 체육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의 기개는 체육계의 자율성 확보인지, 권력자의 실력행사인지 헷갈린다.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구성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위원 선임은 정부의 권한임에도 협의와 다르다며, 대놓고 참석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위원회를 새로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 온라인으로 세계를 넘나드는 현재 시점에 느닷없이 스위스 출장소를 만들겠다면서 힘없는 선수들, 행정가들을 체육관에 동원해 실력행사를 하는 모습은 일부 체육인들의 기득권 지키기로밖에 안 보인다.

그도 그지만, 대한체육회 이사들의 사유 부재는 너무나 아쉽다. 그와 함께 한 8년, 한국 체육의 암흑기에 가까운 그 기간이 그들에게 명예이자, 자부심이 될 만한 일인가?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했다. 악인은 악인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처럼 생긴 이들의 사유의 부재로부터 악의 평범성이 나타난다고 말이다. 선량한 이들에게서 체육계는 복마전이라는 비아냥은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아니다. 체육인들의 사유와 반성이 필요한 오늘이다.



# 무보수 봉사직이라고? 체육단체장에 집착하는 이유는?

## 앵커

기업인들이 이렇게 체육단체장을 연임하려는건 체육 단체장들이 갖는 혜택과 권력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무보수 봉사직이라고 내세우지만 속내는 전혀 다릅니다.  
이어서 이무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대한체육회장직은 이른바 '스포츠 대통령'으로 불립니다.

연간 4천억 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각 종목 단체와 지역 체육회에 나누고, 주요 인사 권한은 물론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출장시 국빈대우를 받는 IOC 위원이 된 이기흥 회장과 최근 AFC 집행위원회에 선출된 정몽규 회장은, 국내 단체장 자격으로 국제 기구 진출이라는 개인적인 명예도 쟁취했습니다.

[김현수/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이 체육회를 장악하게 됐을 때 이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연임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다..."]

체육회는 인물난에 시달리는 지역 체육단체를 위한 조치라고 항변하지만, 중앙의 주요 체육단체장까지 개정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논리의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기흥/대한체육회장/지난 2월 : "3선을 하든 5선을 하든 그건 내가 판단해서 하는 거고..."]

무보수 봉사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선 공감기 배제된 무리한 규정 변경 대신, 한국 체육을 위한 진정한 헌신을 보여줄 때입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 초등 체육교과 분리과정의 민주적 정치문화 미흡

2024.05.21



경인일보

이현서 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앞으로 초등학교 체육교육에 큰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지난 4월26일에 교육부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여 초등학교 1·2학년의 체육, 음악, 미술을 통합한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체육을 분리·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시간 증가와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청소년 체력이 약해지고 비만율이 증가하자 교육부는 작년 10월31일에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초등학교 1·2학년에서 체육을 독립하여 신설하겠다고 하였다. 교육부는 이런 개정안을 지난 2월에 국교위에 요청했는데, 국교위가 교육부 요청을 두 달 만에 수용한 것이다. 앞으로 국교위는 교육과정 개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개정안 연구를 하여 개정안을 만들게 된다. 국교위는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심의·의결한 뒤에 '고시'하는 절차를 밟고 그 후에 교과명과 교과서 개발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교과목 분리에 통상 2~3년 정도가 소요된다. 현재 '즐거운 생활'도 1987년 6월에 통합과목으로 고시됐지만, 시행된 것은 1989년 3월부터였다. 35년이 지나 체육이 단독과목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을 국교위에 요청하고, 국교위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2개월간 체육교육 분야 이해당사자들 의견이 찬반으로 팽팽하게 양분되었다. 먼저 체육학계, 학부모단체, 체육시민단체가 교육부 개정안에 찬성하였다. 한국체육학회와 체육학 17개 단체가 공동으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적 발달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중대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초등 1·2학년의 체육 수업이 따로 없어서 '기본적인 움직임 기술(Fundamental Movement Skills:FMS)'을 익히는 기회를 놓치고 운동에 재미를 느끼지 못해서 운동과 멀어지는 문제가 있고, 초등 1·2학년이 신체 발달의 중요한 시기로서 소근육뿐만 아니라 대근 활동이 많이 필요한데 대근 활동이 부족하여 기본적인 움직임 기술을 익히기 어렵다면서 체육 수업 분리를 촉구했다. 또한 33개 시민단체가 속한 '좋은교육을 위한 학부모 및 시민 단체 총연합'(좋은교육단체총연합)과 체육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도 국교위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사들과 교육행정가를 중심으로 체육교과 분리안을 반대하였다. 이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막 시행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체육을 독립교과로 운영하는 것은 혼란만 일으키니까 현재 교육과정에서 체육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시설 확보와 인력 지원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 4월23일과 24일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7천13명 응답자의 90%가 체육 교과의 분리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초등교사노조는 국교위가 특정 교과목 관계자의 의견만 반영된 의제에 대해 교사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국교위가 교육부의 일방적인 체육 교과 분리 개정에 동의한다면 국교위 존립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필자는 초등 1·2학년의 체육교과 분리안이 청소년 신체 발달에 이롭다는 주장에 동의하지만, 이 결정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배제되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 이것이 민주적 정치문화를 반영하는 것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달(Robert A. Dahl)은 민주주의가 어떤 사회에 안착되어 지속되려면 그 나라의 지도자와 시민들이 민주주의 사상과 가치를 가지고 민주적 실천을 수행하는 것을 지지하는 문화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였다. 민주적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본 조건은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민주적 방식에 의거하여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이다.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분리 결정 과정에 다른 의견을 배제하는 행태는 민주적 정치문화의 싹을 밟아버리는 것이다. 이제라도 다른 의견에 귀기울여 초등 1·2학년 체육수업 분리를 시행하기 위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현서 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자료 출처: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40522010002066>

# 21대 국회의 스포츠관련 입법 현황과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

2020년 5월30일부터 숨 가쁘게 달려왔던 21대 국회가 지난달 29일로 임기가 만료되었다.

법치국가에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4년간 총 2만 6851건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 중 처리한 법안이 9479건으로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된 법안이 총 1만 6378건에 이른다. 법안 통과율이 35.3%로 이를 두고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소리도 들린다.

스포츠관련 법안 상황은 어떨까? 스포츠관련 법안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21대 국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 중 스포츠관련 법률에 입법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가 흔히 스포츠법이라 할 수 있는 스포츠관련 법률은 14개 정도가 제정되어 있다. 스포츠관련 법률 중 가장 오래된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1962년 제정)을 비롯하여 가장 최근에 제정된 '스포츠 3법'이라 불리는 「스포츠기본법」('21. 8. 제정), 「체육인복지법」('21. 8. 제정), 「스포츠클럽법」('21. 6. 제정) 등이 있다.

21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소관 법률인 스포츠관련 법안은 총 227건이 발의되었다. 그 중 가결된 법안이 총 44건(수정가결 12건 포함), 대안반영폐기 법안이 78건, 임기만료폐기 법안 97건, 철회법안 3건으로 나타난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참조). 가결된 법안을 기준으로 할 때 법안 통과율이 19.4% 수준이지만, 대안반영폐기 법안이 결국 대안으로 반영되어 의결된 것으로 이를 반영하면 63.0%로 높아진다.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은 총 97건(42.7%)로 나타난다(철회법안 3건 포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99건 발의되어 가결된 법안이 9건, 대안반영 폐기 45건, 임기만료 폐기 44건, 철회 1건이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분야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법률로 그만큼 법개정 수요도 많고 다양하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인권중심의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을 위하여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보호 보호 시책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45건 발의되어 가결된 법안이 9건(수정가결 3건 포함), 대안반영 폐기 12건, 임기만료 폐기 19건, 철회 1건이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코로나19에 따른 체육시설의 감염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업의 인공암벽장업 추가, 골프장 수요 증가에 따른 골프장업의 이용료 인상, 유사회원 모집 등 편법행위 등 국민체육 진흥 및 골프대중화 정책의 취지에 반하는 영업행태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용질서 확립 등을 위한 법개정 등을 추진하였다.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24건 발의되어 가결된 법안이 4건(수정가결 2건 포함), 대안반영 폐기 5건, 임기만료 폐기 17건이었다. 「학교체육진흥법」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도 및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수·지도자 등 인권교육 강화, 인권피해 발생시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 CCTV 설치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였다.

다음 장 계속

이 외에도 스포츠관련 법령에서 스포츠 현장의 다양한 제개정 수요 등을 반영해 각 분야별 관련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1대 국회에서 스포츠관련 입법의 가장 큰 성과는 '스포츠 3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스포츠 3법'인 「스포츠기본법」, 「체육인복지법」, 「스포츠클럽법」의 제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자유롭게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전문 체육인이 생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육인복지 환경 조성,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전문선수를 육성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복지 증진 등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스포츠는 이제 일부 선수들만이 대회이나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스포츠 즐기고 참여해야 하는 삶의 일부분이다. 특히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참여중심의 스포츠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손쉽게 스포츠를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1대 국회에서는 정권이 교체되고, 여소야대 등 다양한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여야의 협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야당의 법안의 강행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등으로 극한 대결 정치로 인해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과 기능인 입법 활동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스포츠관련 법안을 담당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달랐다. 여야가 서로 치열하게 논의하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헌정사상 처음으로 스포츠 분야에 3개의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켜 제정법을 만들었고, 인권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환경 조성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선수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합의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스포츠클럽법」인 스포츠 3법의 제정을 위해 여야가 서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입법하였다. 「스포츠클럽법」의 경우는 여야에서 모두 3개의 법안(「스포츠클럽육성법안」, 「스포츠클럽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스포츠클럽진흥법안」)을 발의하고 대안은 마련하여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스포츠분야의 제정법이 3개나 마련된 것이다.

22대 국회 역시 개원은 하였으나, 여소야대 정국의 강대강 대결 구도로 협치를 바탕으로 한 국회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스포츠관련 분야의 입법활동에서 만큼은 21대 국회에서처럼 협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안의 제·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스포츠기본권이 제정된 만큼 모든 국민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시대 참여중심의 스포츠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신체활동 기반 예방 중심의 스마트헬스케어를 통한 의료비절감, 지방소멸시대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스포츠 R&D 기술개발, 고부가가치 스포츠산업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선수자원 확보 등 경기력 향상 위한 체계적인 육성·지원 등 여전히 스포츠 분야의 입법수요는 너무나 많고 다양하다.

정책의 완성은 입법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인력이나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 22대 국회에서도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입법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스포츠 현장의 입법수요를 반영하여 필요한 좋은 법안들을 많이 입법하기를 기대하고 바란다.

#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 선수들 안전관리, 지도교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건가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전후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선수에 대한 안전대책 문제가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매년 성공적이고 안전한 대회 개최를 강조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타지에서 치르는 대회이다 보니 도선수단을 총감독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세심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27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단은 이번 소체가 열리기 전 참가 선수단에 출전 계획과 사안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안전관련 보고체계는 종목별 가맹경기단체(사무국장)와 도교육청이 효율적인 선수단 관리를 위해 꾸린 경기도 학생선수단 지원센터와 소통하는 방식이다.

또 출전학교 지도교사와 각 교육지원청의 체육 담당 장학사 등 관계자와 선수단 지원센터가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 공유한다.

소체를 주최한 대한체육회도 시·도선수단에 결단식 개최 시 스포츠 공정성 윤리 교육과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소체에 출전한 지도자들은 선수들에 대한 이동 시 안전 준칙, 경기장 밖에서 선수단 관리에 대한 관리 지침 등과 같은 세부 내용은 문서화해서 제공받지 못했다.

한 종목단체 관계자는 "학생 선수들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안전관련 동영상을 활용해서 진행하라고 연락을 받았다. 학생 선수 관리에 대한 세부 지침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회에 참가한 지도자들과 종목별 단체 관계자들은 학생 선수 관리가 자유로워서 좋은 점은 있지만 도교육청이 학생선수 안전과 인권을 위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종목단체 관계자는 "2017년 지방 대회에 출전한 학생 선수들이 사고를 당하는 사건이 알려지며 한때 학생 선수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었다. 당시 도교육청에서 학생 관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세세하게 관리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 지금은 인솔 교사와 지도자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관계자는 "종목단체별로 사무국장 회의를 열었고, 출전학교 지도 교사들도 모여 안전 관련 회의를 했다"면서 "일선 출전학교에 안내 사항을 공문으로 보냈으며, 안전지원단을 구성해 현지에서 숙소나 식당 등 주변 유해환경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법원, "'후배 괴롭힘' 오지영, 1년 자격정지 징계 타당"

<https://www.sportsw.kr/news/newsview.php?ncode=1065574943627523>

체육요원 병역특례제 과제는?... 31차 스포츠 정책 포럼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164070&code=61161111&cp=nv>

[단독] 체육센터 회원 개인정보 창고에 방치

<https://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69038>

밀양시체육회, 자전거 타기로 스트레스 날렸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602\\_0002757627&cID=10812&pID=10800](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602_0002757627&cID=10812&pID=1080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스포츠클럽 관계자 워크숍 개최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603\\_0002759295&cID=10501&pID=10500](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603_0002759295&cID=10501&pID=1050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고위직·관리자 부패 방지 교육 시행

<https://mksports.co.kr/view/2024/405430>

광산구시설공단 수완체육센터, 장애인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인기'

<https://news.tf.co.kr/read/national/2103590.htm>

서울시교육청-중랑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https://www.yna.co.kr/view/PYH20240603135100013?input=1196m>

양주시, 연산장학재단 체육특기·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6031607434790607>

# 체육시민연대

##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